

대중교통 혁신 ‘기후동행카드’ 누적 충전 1000만건 돌파

서울시, 출시 1년 만의 성과
김포·구리·고양 등 이용범위 확장
신용카드 결제, 후불형 등 불편 해소
5월 성남, 하반기 하남 등서도 사용

기후동행카드가 출시 1년여 만에 누적 충전 1000만 건을 돌파하며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기준 선불 ‘기후동행카드’ 누적 충전 건수가 실물 690만 건, 모바일 311만 건 등 총 1001만 건을 넘어섰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해 1월 27일 선보인 ‘기후동행카드’는 지하철과 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하나의 카드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적용지역 확대…단기권 도입 등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출시 이후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서울뿐만 아니라 김포, 남양주, 구리, 고양, 과천 등 수도권 지하철까지 이용범위를 확장했으며,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확대하고 후불형 카드도 출시하는 등 시범사



업 초기 현금결제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다.

이후에는 내·외국인 관광객 및 단기 이용자를 위해 1·2·3·5·7일권 등 단기권을 도입했고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서울달 등 주요 문화시설과의 연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 실제 이용자들은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기후동행카드 1주년을 기념해 실시한 이용후기 이벤트에서도,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과 ‘친환경 실천’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가 지난 1월 진행한 기후동행카드 생일축하이벤트 선정후기에서 한 사용자는 “평일 출퇴근에, 퇴근 후에는 학원 가는 일상이라 교통비가 부담스러웠는데, 기후동행카드로 청년할인까지받으니 마음이 편하다”라며 “휴일마다 서울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재미도 쏠쏠하고, 덕분에 여의도공원에서 서울달 풍선도 저렴하게 탔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청소년·다자녀 부모·저소득층 대상 맞춤형 할인

서울시는 앞으로도 맞춤형 혜택과 서비스 확대를 통해 기후동행카드를 더욱 편리하고 경제적인 대중교통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수도권으로 이용범위가 지속 확대된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오는 5월 3일 성남시 구간 지하철에 적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하남시 및 의정부시 지하철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시는 추후 더 많은 지역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다자녀 부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할인도 오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도입 된다.

청소년 할인은 서울시 규제철폐안 91호로 추진되는 내용으로 만 13~18세 청소년들도 청년과 동일하게 7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30일권(55/58천원)을 이

용할 수 있도록 할인 연령이 확대된다.

다자녀 부모 및 저소득층 할인 역시 30일권에 한해 적용되며, 2자녀 부모의 경우 5만원대, 3자녀 부모 및 저소득층의 경우 4만원대의 가격으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으며 비대면 자격확인 시스템 연계 등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시는 오는 5월부터 서울 교통 통합브랜드인 ‘GO SEOUL(고 서울)’을 적용한 신규 디자인의 기후동행카드를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여광원 서울시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교통복지와 환경이라는 두 축을 함께 아우르는 서울시 대표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2028학년도 수능 모평 9월→8월 앞당긴다

교육부, 통합형 수능 예시문항 공개 통합형 수능+내신 5등급 체제 도입

매년 9월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하반기 모의평가가 오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 8월로 앞당겨진다. 수시모집 원서접수 일정도 하반기 모평 성적표가 나온 이후로 순연돼 학생들이 대입 지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15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 입시를 준비하게 될 학생들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변경 정보와 함께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예시 문항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현재 고1인 학생들은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춘 통합형 수능 체제와 내신 5등급 체제로 입시를 준비하게 된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 하반기 모의평가는 9월이 아닌 8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 모의평가는 2027년부터 8월 4주~5주 중 시행되고, 수시모집 원서접수 일정은 모의평가 성적이 통지된 이후인 9월 중순 이후로 순연된다.

지금까지 하반기 모의평가는 9월 치러진 뒤 성적이 통지되기 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마감됐다. 이에 대입 예측 가능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아울러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8학년도 수능부터 출제과목 등이 변동되는 국어·수학·사회·과학 영역의 전체 예시문항도 공개했다. 이번 문항 개발에는 지난 1월 현장에 안내한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등 2028 수능의 시험 및 접수 체제가 반영됐다.

2028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은 선택 과목이 폐지되는 한편,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45문항 80분으로 유지된다.

‘수학 영역’도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30문항(단답형 9문항 포함) 100분으로 유지된다. ‘사회탐구 영역’ 및 ‘과학탐구 영역’도 선택과목이 폐지돼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출제되며, 각각 25문항 40분 치러진다.

이번 문항 안내 자료집에는 영역별 문제지와 정답표, 문항별 교육과정 근거가 제공되며 수험생의 학습을 돕기 위해 대표문항에는 출제 의도, 교수·학습 주안점 등이 함께 안내된다.

또한 이번 전체 문항은 학생·교사들의 2028학년도 통합형 수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평이한 수준으로 개발됐으며 평가원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대기업-中企 협력기반 조성 강화

제2차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 확정

경기도가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동반성장 페어를 개최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실질적 협력 기반 조성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경기도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5개 분야 27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지난해 공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사업들을 바탕으로 수립했다. 2025년에는 660억 원을 투입하며, 분야별로 공정거래 분야 7개 사업(22억 원), 상생 분야 10개 사업(567억 원), 사회경제적 분야 3개 사업(53억 원), 소비자 분야 3개 사업(17억 원), 노동 분야 4

개 사업(2천만 원)으로 구성됐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과 기술탈취 예방에, 상생 분야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둔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는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 구성·운영 ▲상생주간 연계 동반성장 페어 개최 ▲상생결제 활성화 지원 등 신규사업 6건이 포함됐다.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는 지자체-대기업-동반성장위원회가 함께 지역 맞춤형 상생모델을 발굴·추진하는 체계로, 연 2회 회의를 개최하며 지역 경제 주체 간 상생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의대학사 유연화 없어… 수업 참여를”

KAMC “새정부 무관 정부목표 확고”

전국 의대 학장들이 “올해는 새 정부 출범과 무관하게 학사 유연화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조속히 선언할 수 있도록 수업에 참여해 달라”며 학생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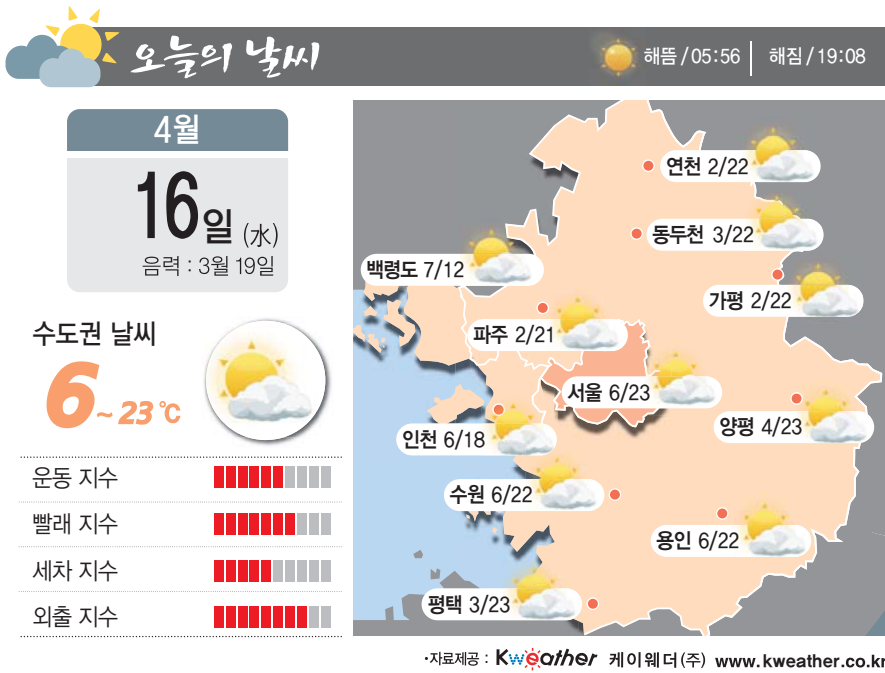
수업 참여를 호소했다.

40개 의과대학 학장들 모임인 한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 학사 정상화라는 정부 목표는 확고하며 이는 새정부 출범과 무관함을 인식해야 한다”라며 “정치적 상황이 여러분

에게 학사유연화 등의 여지를 열어줄 수 있다는 판단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KAMC는 “교육부, 의총협(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은 2025학년도 학사운영은 학칙 준수가 기본 방침이며 학사 유연화 계획이 없음을 여러번 확인했다”라며 “의대 학장은 방침에 예외를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우크라이나 “러에 속아…동포들, 참전 말라”
▲“관세 폭탄에 명품도 흔들린다”…LVMH, 1분기 매출 3% ↓
/사진 뉴스시스

▲연준 고위 관리 “상호관세 부과 시 금리인하 불가피”
▲홍콩지 “美, 관세 전쟁 전 中 내민 협상 손 뿌리쳤다”

▲中 “하얼빈 동계표서 미국이 사이버공격”…美 요원 3명 수배
▲美 “관세 후폭풍” 속 연준의장 교체 준비…재무 장관 “후임 물색”